

‘돌싱포맨’ “행복에 목마른 50.5세의 네 남자 토크쇼”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SBS 새 예능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는 탁재훈, 임원희, 이상민, 김준호가 참석했다. ‘신발 벗고 돌싱포맨’은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화제를 모은 네 명의 남자가 뭉쳤다. 무언가 결핍되고, 어딘가 뼈저린, 그리고 행복에 목마른 평균 연령 50.5세의 네 남자가 자신의 집으로 게스트를 초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관찰 토크쇼다.

탁재훈은 이날 “편안한 토크를 할 것 같다. 짜여 있거나 답답한 느낌이 아닌, 정해져 있는 질문과 답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이야기와 재미가 있을 것”이라며 “토크쇼라고 하면 게스트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담 없이 집에서 남자들이 수다를 떠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집에서 하나가 신발을 벗고 무장해제되는 기분이다. 집에 놀러 간 듯한 느낌으로 토크를 하나 까지도 본심을 꺼내고 꾸미지 않은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제작발표회 탁재훈 “집에 놀러간 듯 편안한 토크” 임원희 “재혼하게 돼 2기 만들졌으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며 “시청자들도 편하게 같은 공간에서 듣고 얘기하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원희는 “세상에 이런 조합은 없다.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배려해주는 모습이 좋다.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며 “저희 네 명은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 편안하게 상담받는 기분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돌싱포맨’의 막내인 김준호는 “제가 토크에 약한데 형님들과 하나씩 편안하다. 술 먹고 할 얘기를 술 안 먹고 하는 분위기”라며 “저는 갔다온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까지 위축돼 있었

다. 그런데 선배님들이 철없이 사는 것 을 보고 나도 활기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님들과 얘기하며 자신감이 붙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상민은 “정말 행복하게 흡입을 것 없이 사는 분들이 일탈하러 놀러 오셨으면 좋겠다. 행복이 길어지면 이게 행복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탁재훈은 “꼭 사연 있는 사람 보다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을 것 같다. 누구나 사연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임원희는 “늦게까지 결혼 안 한 분들이나 다시 갔는데 잘 사는 분들도 모시고 싶다”고 했다. 정규 편성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다. 탁재훈은 “잘 돼서 안정된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다. 종이컵처럼 살기

많다. 머그컵처럼 계속 닦고 쓰고 싶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 임원희는 “네 명이 잘해서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았는데, 한두 명이 재혼하게 돼서 ‘돌싱포맨’ 2기가 만들어지는 꿈을 꾸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후 멤버들이 꼽은 가장 먼저 탈출할 것 같은 사람으로도 임원희가 꼽혔다. 탁재훈은 임원희를 지목하며 “의심을 하고 있다. 갑자기 난데없이 그런 소식을 알려줄 것 같다. 누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임원희는 “없다.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혹은 온다고 하지 않나. 사랑의 교통사고를 빨리 당해보고 싶다. 정면충돌하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수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또 다른 행복으로 갈 수 있다”며 웃었다. 이상민은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정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답답한 상황인데, 시청자들의 속을 뺏 풀어줄 수 있는 재미를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데이: 귀멸의 퇴마학교’ 9월 개봉

강찬희와 박유나가 주연한 영화 ‘화이트데이: 귀멸의 퇴마학교’(감독 송운)가 9월 개봉한다. 13일 제이앤씨미디어그룹에 따르면 ‘화이트데이: 귀멸의 퇴마학교’가 오는 9월 개봉을 확정했다. ‘화이트데이: 귀멸의 퇴마학교’는 늦은 밤 학교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악령으로부터 친구들을 구하기 위한 사투를 그린 공포 판타지다. 드라마 ‘SKY 캐슬’로 눈도장을 찍고,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강찬희가 극중 아직 능력을 자각하지 못한 대한민국 최고 퇴마사의 후계자 ‘희민’ 역을 맡았다. 아역 배우로 시작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한 그가 최초로 퇴마 장르에 도전했다.

특유의 매력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박유나가 학교의 저주에 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소녀 ‘소영’으로 분한다. 강찬희와 박유나는 ‘SKY 캐슬’과 ‘여신강림’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여기에 영화 ‘도가니’, ‘광해, 왕이 된 남자’, ‘신과 함께’ 등의 작품으로 탁월한 연기력을 선보인 베테랑 장광이 함께 출연한다.

제작진은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이라는 게임을 바탕으로 퇴마 소재를 결합해 색다른 이야기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함께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비장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 강찬희의 모습을 담았다. ‘악령의 결계가 무너지고 그가 각성했다’라는 문구는 과연 그를 각성하게 만든 정체불명의 사건이 무엇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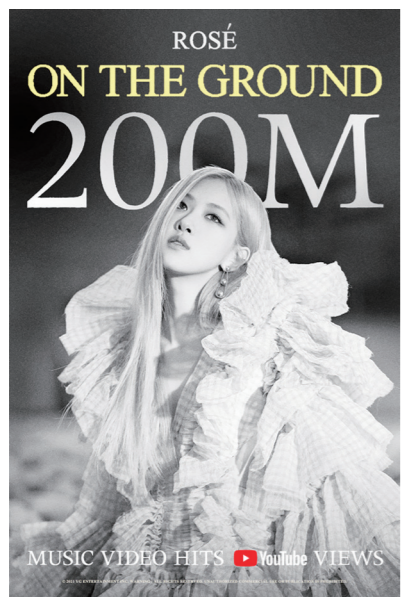


영화, 보스 베이비2 언론 시사회 취소

21일 개봉 예정대로

애니메이션 ‘보스 베이비2’ 측이 언론 시사회를 취소했다. 유니버설픽처스 측은 13일 “보스 베이비 2가 서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 기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언론 시사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봉일은 7월21일 그대로 진행된다. ‘보스 베이비 2’는 진짜 보스가 된 ‘테드’가 조카인 줄만 알았던 뉴 보스 베이비 ‘티나’의 지시로 다시 베이비로 돌아가야 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2017년 전국 245만 관객을 모았던 ‘보스 베이비’의 후속편이다.

블랙핑크 로제 ‘온 더 그라운드’ 뮤비, 2억뷰 돌파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 앨범 ‘R’ 타이틀곡 ‘온 더 그라운드(On The

한국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단 기록

Ground’ 뮤직비디오가 2억뷰를 돌파했다. 1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4시56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2억 회를 넘어섰다. 지난 3월 12일 공개된 지 약 123일 만이다. ‘온 더 그라운드’ 뮤직비디오는 화려하고 웅장한 영상미는 물론 ‘초심’을 이야기하는 노랫말이 로제의 풍부한 감정 연기와 어우러져 호응을 얻었다. 일주일여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 한국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단 기록을 세웠다.

또 로제는 이 곡으로 51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미국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차트 정상에 처음 올랐다. 로제는 당시 기네스 세계 기록 2개 부문(공개 24시간 내 유튜브 조회수 한국 솔로 가수 1위, 솔로·그룹 모두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 등극 가수)에 공식 등재되기도 했다. 한편 로제가 속한 블랙핑크는 총 29편의 역대급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630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이 분야 여성 아티스트 중 1위이자 전 세계 1위인 저스틴 비버의 구독자 수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김세정, 글로벌 메가 히트곡 리메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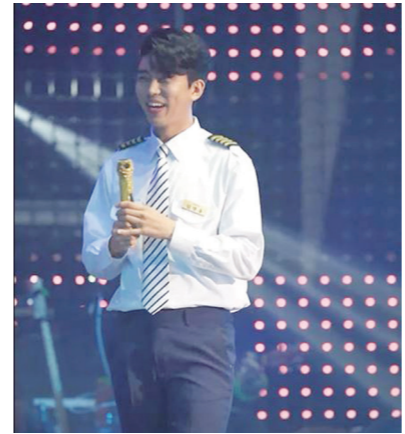
힙합 풍 러브송... K-POP 버전 리메이크 음원

가수 김세정은 신곡 ‘베이비 아이 러브 유(Baby I Love U)’를 오는 23일 발표한다. 신곡 ‘베이비 아이 러브 유(Baby I Love U)’는 가수 티(TEE)가 발매한 힙합 풍 러브송을 케이팝(K-POP) 버전으로 리메이크한 음원이다. 원곡은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석권하고 유튜브 조회수 3500만 회를 기록한 것은 물론, 호주 출신 가수 Che'Nelle(세네루), 영국 밴드 Mamas Gun(마마스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리메이크를 거쳐 누계 매출 1000만 다운로드

를 돌파한 글로벌 메가 히트곡이다. 김세정이 부른 ‘베이비 아이 러브 유(Baby I Love U)’는 보아, 소녀시대, 엑소, 엔시티와 협업해온 ‘아이코닉 사운드(Iconic Sounds)’가 편곡과 프로듀싱을 맡았다. 이번 신곡에서 김세정은 특유의 맑음 음색과 시원한 가창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세정은 2016년 발매한 첫 솔로곡 ‘꽃길’부터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터널’, ‘화분’, ‘웨일(Whale)’, ‘워닝(Warning)’을 연이어 공개해 음악적 역량을 펼쳤다.

임영웅 “팬분들, 온전한 사랑의 존재”

‘아름다운 그늘’ 문구 인용 팬들에게 마음 전해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 ‘임영웅 쇼트(Shorts)’에 13일 ‘임영웅 앵콜멘트 청주콘서트 7/11’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비행기 조종사 유니폼을 입은 임영웅은 해당 영상에서 작가 신경숙의 산문집 ‘아름다운 그늘’의 문구를 인용해 팬들에게 마음을 전했다. “마음 평화롭게 살아가는 힘은 내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내 아픔과 기쁨을 자기 아픔과 기쁨처럼 생각해주고, 또 있는 듯 없는 듯 함께 있는 사람의 소중함.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행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제가 그리고 저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톱6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런 온전한 사랑의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55분 만에 조회수 1만8000회를 기록했다. 댓글은 400여 개가 달렸다. 해당 영상을 본 팬들은 “따뜻하고 착한 인성으로 그 마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반듯한 청년”이라며 임영웅을 응원했다.

문세윤·최성민·이국주, FNC엔터테인먼트 재계약



개그맨 문세윤, 최성민, 이국주가 FNC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13일 “문세윤, 최성민, 이국주가 최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과 또다시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앞

으로 이들과 만들어갈 시너지가 기대된다. 문세윤, 최성민, 이국주가 불편함 없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세윤은 KBS의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1박 2일’ 시즌4에서 팀의 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지난해 ‘KBS 연예대상’ 쇼 버라이어티 부

문 최우수상을 받으며 대세 예능인으로서 자리잡았다. 이 밖에도 tvN ‘코미디 빅리그’, ‘놀라운 토요일’, KBS 2TV ‘트롯 매직유랑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코미디 빅리그’의 최다 우승자인 최성민은 개그계의 브레인으로 불리며 동료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지금까지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받은 상금만 8억 이상이라는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다. 동료들의 개그를 뒷받침해주는 것에 특화돼 있다고 해서 ‘프로받침 러리’는 별명으로 불리는 최성민은 최근 tvN ‘강철계구부대’에서 개그 베테랑의 매력을 뽐냈다. 이국주는 최근 JTBC ‘1호가 될 순 없어’, SBS ‘동상이몽2’, KBS 2TV ‘펜스타랑’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로 출연해 특급 존재감을 보여줬다.

MBC, 프랑스 제작사와 ‘복면가왕’ 스펠오프 제작

나이·장르·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

MBC가 프랑스 제작사 ‘에브리 위베르(Herve Hubert)’와 예능 ‘복면가왕’의 스펠오프인 ‘더 마스크드 탠트(The Masked Talent)’를 제작한다.

스타들이 출연했던 기존 ‘복면가왕’과 달리 일반인 혹은 숨은 실력자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복면가왕’의 시작부터 함께해 온 김성주가 MC

로 나선다.참가자들은 8월13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나이, 장르,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MBC 공식 누리집에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더 마스크드 탠트’는 9월 주시 연휴에 방영될 예정이다.